

● ● ● ● 협회소식

● 강남구 'ESCO사업 설명회'

ESCO협회(회장 유제인)와 강남구청(청장 맹정주)은 지난 10월 17일 강남구 내 대형건축물의 ESCO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에너지절약형 시설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강남구내 1만㎡ 이상 대형건축물 소유주 및 관리자, 유관기관장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SCO 사업 설명회'를 청담2동 문화센터에서 실시했다.

강남구 부구청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설명회는 에너지관리공단 신기석 서울지사장이 'ESCO사업 제도를 설명'하고 에관공 서울지사 정기양 부장이 'ESCO 자금융자 및 인센티브 안내', ESCO협회 사무국장이 'ESCO 사업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강남구청과 ESCO협회는 강남구내 대형건물에 대한 ESCO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은 지난 8월 강남구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e-에너지절약 실천프로젝트'에서 우수사례로 뽑힌 KT&G서울사무소, 강남우체국, 개포1,2차아파트, 청담중학교, 수서중학교, 언북중학교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 강남구내 ESCO사업 추진협약

협회와 강남구청이 구청내 1만㎡ 이상 225개 대형건축물에 ESCO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3일, 협회와 강남구청은 강남구내 1만㎡ 이상 225개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ESCO사업 추진 협약'을 마치고 그 첫 단계로 강남구내 ESCO사업 추진건물을 대상으로 ESCO사업 의지파악과 진단을 위한 [건물 에너지관리진단 사전조사표]를 대상건물에 작성, 요청에 들어갔다.

강남구청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하고 56만 구민과 기업, 구청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할 5개 분야 12개 부문, 61개 단위사업으로 이뤄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해 2010년까지 온실가스 29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 제 4차 이사회실시

지난 12월 5일, '제4차 협회 이사회'가 삼성화재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협회 이사진들이 참여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7년 사업실적 및 2008년 사업계획안과 2007년 수입·지출실적 및 2008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협회는 지난 10월 18일, 에너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ESCO자금지원지침 개정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ESCO 용자기간 재검토와 ESCO자금지원을 자금배정방법개선 등의 논의를 함께 했다. 또 지난 11월 15, 22일에 에너지관리공단 6층 회의실에서 열린 ESCO등록기준 개편 관계자 1, 2차 회의에 참석, 등록기준개편 관련 ESCO업체의 의견을 내놓았다.

또, 지난 11월 9일, '중국 상해 대외 경제무역협회'가 2008년 상해국제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감축 박람회 관련 협조 요청을 위해 ESCO협회를 내방했으며 협회는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12일, 2007년 4분기 자체투자실적 인정 심의회의를 성림산업개발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심의대상은 자체투자실적(100%) 9건과 일부 3건이다. 심의대상은 총 3개사 12건으로 한라건설(주)이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에 설치한 열병합발전과 일진전기(주)가 실시한 폐열회수 히트펌프(두풍개발(주)에 실시한 폐열회수 히트펌프 외 7건), (주)한성종합기술단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에 실시한 흡수식냉온수기(외 2건) 등이다.

협회는 또 'ESCO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해 오는 2008년 1월 중순경 서울산업대와 'ESCO 관리자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